

투자 환경·인프라 열악...광주·전남 창업생태계 '최악'

10년간 모태펀드 투자액 광주 0.9%·전남 0.4% 그쳐...AI·에너지 등 기업유치 난항

광주와 전남지역 창업생태계가 그야말로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도 수도권으로만 집중돼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하고 있다. 지역 내 창업환경이 척박한 탓에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광주·전남의 중점 산업에 대한 창업과 기업유치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지역경제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별 모태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모태펀드 투자액은 총 20조3251억원이었다. 그 중에서 광주 투자액은 전체의 0.9% 수준에 불과한 1817억원에 그쳤고, 전남 역시 0.4%인 902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은 전체의 48.2%인 9조7952억원, 경기도는 21%인 4조1492억원을 투자받았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투자액이 전체의 71%에 달하는 14조4488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수도권 몰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태펀드는 정부의 출자금으로 펀드를 결성해 연구개발비 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펀드다. 모태펀드의 수도권 편중으로 광주·전남 내 벤처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밖에 '최근 10년간 지역별 엔젤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광주의 엔젤투자 유치액은 336억원이었다. 전체 엔젤투자 규모가 3조2781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 비중이 1%에 불과한 것이다. 전남 역시 328억원으로 1%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달리 서울은 전체의 46%인 1조5155억원을 유치했고, 경기도는 27%인 8750억원을 유치했다. 수도권 유치액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엔젤투자는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금과 경영 자문을 지원해 기업을 성장시킨 후 투자 이익을 회수

하는 개인 단위 투자다. 지역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확보와 고충 창출 자금을 지원해 지역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스타트업 창업 조성을 돕고 있다. 지역 벤처기업 창업의 주요 투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투자 비율이 광주·전남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 내 창업생태가 열악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2의 벤처 열풍'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도 광주·전남은 그 열기를 체감할 수 없을 정도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벤처기업확인 기업 수' 자료를 보면 올 6월 기준 전국 벤처기업 수는 총 3만8193개였다.

대다수가 수도권(2만3252개·60.9%)에 몰려있었고, 광주는 788개(2.1%), 전남은 818개(2.1%)에 불과했다.

지자체별 벤처캐피탈 현황을 봐도 올 8월 기준 전국 182개 창업투자회사 중 광주는 1개였고, 전남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역시 총 336개 기업 중 광주는 8개(2.4%), 전남은 2개(0.6%)였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투자가 수도권에만 몰려 광주·전남 기업들은 투자유치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부는 지역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지역 경제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상의 관계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달빛고속철 조속 착공·2038 아게임 공동 유치"

광주-대구 상의, 동서 경제교류 활성화 업무 협약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는 21일 광주상의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동서 광역경제권 구축 등 양 지역의 경제교류 활성화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상의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달빛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견과 기술교

환을 비롯해 원활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 광주형 일자리 생산제품인 캐스퍼 등 양 지역 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상속 공제제도와 법인세 인하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와 대구 지역 경제인들이 단순한 우호 협력 관계를 넘어 달빛고속철도의 조기 건설을 비롯한 동서 광역 경제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동서 화합을 상징하는 광주-대구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교류의 문을 넓혀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년 고용 한파...전남 학자금 체납 증가율 '전국 최고'

광주·전남 5년새 4.6배로 늘어

광주·전남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5년 새 4.6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난을 겪은 지난해 전남 체납액 증가율은 48.7%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1일 국제통계포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학자금 미정리 체납액은 광주 11억1000만원·전남 6억8400만원 등 17억9400만원으로, 5년 전인 2015년의 4.6배(14억1000만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전년에 비해서는 39.5%(5억1100만원) 급증했다.

광주·전남 체납 건수는 453건에서 1527건으로, 5년 새 3.4배(1074건) 증가했다.

광주·전남 학자금 체납액은 2017년 5억2000만원(광주 3억1000만원·전남 2억1000만원)→2018년 8억5000만원(광주 5억2700만원·전남 3억2300만원)→2019년 12억8300만원(광주 8억2300만원·전남 4억6000만원)→2020년 17억9400만원(광주 11억1000만원·전남 6억8400만원) 등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체납 건수도 469건(2017년)→691건(2018년)→1115건(2019년)→1527건(2020년)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절벽이 발생한 지난해에

는 전남 체납액 증가율이 48.7%를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에 이어 서울(41.9%), 대전(36.0%), 경기(35.4%), 광주(3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체납액은 321억8900만원에서 426억5100만원으로 증가하며, 증가율 32.5%를 나타냈다.

평균 증가율을 밑돈 지역은 울산(2.5%)과 제주(16.0%) 등 10개 시도였다.

고용 여건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을 제때 갚을 수 없는 사례가 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은 졸업 후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생기면 이듬해부터 빌린 돈을 갚아나가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시에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21일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을 찾아 인재육성 장학금 1000만원을 전했다. <광주은행 제공>

외환거래 우수 고객 행사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부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외환거래 우수 고객에 감사의 행사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농협 완도군지부와 농협 동광양지점에서 진행됐다. 농협은행은 외환거래 우수 고객에게 선물과 꽃바구니를 선물했다.

선정된 우수 고객은 전남지역 무역거래 기업인 완도 청해바이오텍과 광양 조우로지스이다.

청해바이오텍은 전복과 해조류 사료·영양제를 제조한다. 조우로지스는 축사 바닥갈개용 우드펠릿 수입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농협은행과 외환서비스를 거래해왔다.

이창기 전남영업본부장은 "농협은행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어려운 지역 여건에서도 무역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남 수출입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든든한 외환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코스피	3007.33 (-5.80)
↓ 코스닥	993.70 (-7.92)
↓ 금리(국고채 3년)	1.836 (-0.011)
↑ 환율(USD)	1177.20 (+3.00)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2021년 하반기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